

일 정신병원 직원의 정신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

류 석 환*†

Staffs' Attitudes and Opinions toward Psychiatry in a Psychiatric Hospital

Seuk Hwan Ryu, M.D.*†

국문초록

연구목적 :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정신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향후, 직원과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과와 정신과 질환에 대한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방 법 :

일 병원에 근무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정신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결 과 :

정신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며, 두 개의 요인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요인이 있었으나, 직접 접촉군이 더 긍정적이었다. 정신과 영역의 장점 요인에서 여성이 더 긍정적이었으며, 효용 요인에서도 여성이 더 긍정적이었고, 정신과 의사의 기능과 역할 정의 요인과 일어날 수 있는 남용과 사회적 비난 요인과 경력과 개인적 보상 요인에서는 직접 접촉군이 더 긍정적이었다.

결 론 :

정신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 직접 접촉군이 더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정신과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과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중심 단어 : 태도 · 정신과 · 접촉.

서 론

정신과 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와 같이 직접 환자에게 진료와 검사를 포함한 시술이나 투약을 하는 사람 이외에도 병원의 직원이나 외부 용역직원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환자나 보호자와 접촉

을 하게 된다. 이때, 이 사람에 대하여 환자와 보호자가 가지게 되는 인상이 병원에 대한 인상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¹⁾에서 정신과와 정신과 의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정신과 자문 의뢰 만족도가 높았으며, 정신과 의사의 태도가 정신과 자문 의뢰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불

*안강중앙병원 신경정신과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Ankang Chungang Hospital, Gyeongju, Korea

†Corresponding author

때,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태도는 정신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 혹은 정신과 의사의 태도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 보면, 1950년대 클로르프로마진(chlorpromazine)이 정신분열병의 치료에 이용되기 시작한 후, 리튬(lithium)과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계 항불안제를 포함한 여러 약제가 정신과 질환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신분열병을 포함한 정신과 질환의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²⁾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에는 정신과 환자에 대한 낙인(stigma)³⁾이 있으며, 이스라엘 (Israel)에서 이라나(Ilana)가 시행한 연구⁴⁾에서도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mentally ill)'이라는 단어는 '어리석은(stupid) 사람', '더러운(dirty) 사람', '살인자(murderer)'라는 인상을 준다고 하였고, 영국의 와이즈(Wise) 등이 시행한 연구에서는 '정신과 질환을 가진 사람'은 '공격적이고, 함께 일을 하기가 두려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등^{5,6)}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도 지역 사회의 일원이므로, 이러한 사회적 편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신분열병 환자에 대하여 지나친 비판, 공격, 과잉 보호 등의 감정표현(expressed emotion)이 높은 가족의 경우가 그러하지 않은 경우보다 재발율이 유의하게 높았다⁷⁾고 하며, 이정은 등⁸⁾은 안산시 지역 주민의 정신과 환자에 대한 태도조사에서 여성, 고연령층, 저학력일수록 정신질환자를 사회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하였고, 사공정규와 채정욱⁹⁾은 포항시 지역 주민의 정신과 환자에 대한 태도조사에서 고연령층, 저학력, 기혼집단, 정신과 환자의 가족 및 본인의 정신과 치료 경험군에서 부정적이었다고 하였다. 김종석 등¹⁰⁾은 정신과 환자의 가족이 일반인에 비하여 정신과 질환에 대한 지식은 더 많았고 치료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신과 질환을 더 싫어하고 더욱 비판적이었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¹¹⁾에서 정신과 환자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한 직원의 삶의 질이 간접적으로 접촉을 한 직원의 삶의 질에 비하여 나쁘다고 하였다.

이에 본 저자는 일 정신병원의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환자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직원과 간접 접촉을 하는 직원의 정

신과와 정신과 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정신과 병원 직원과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과 질환과 정신과 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3년 7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안강중앙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중,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한 61명을 대상으로 하여 정신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련된 무기명 설문지를 각 개인에게 배부한 후, 나중에 설문지를 다시 회수하였다.

2. 연구방법

정신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류석환¹²⁾이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을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정신과 영역의 장점', '효용', '정신과 의사의 기능과 역할 정의', '일어날 수 있는 남용과 사회적 비난', '경력과 개인적 보상'이라는 5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지는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보통이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의 다섯 단계 중 하나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긍정형 문항은 11문항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까지 각각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가하였다. 부정형 문항은 15개 문항이며 역으로 채점하였다. 각 문항에서 얻은 점수를 각 요인별로 합하여 총점을 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의미하며, 이것을 각 요인별로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접촉형태)과 연관시켜 차이가 있는가의 여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대상자의 반응에 관한 것은 익명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3. 자료 분석

설문결과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결혼상태, 접촉형태와 같은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5개 요인에 따라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접촉 형태에 따라 원무과, 임상병리과, 총무과, 관리과, 영양과 직원은 간접 접촉군으로, 방사선과, 간호과, 사회사업과, 의

무과 직원은 직접 접촉군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분류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SPSS 통계패키지 version 9.0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요인별 분석을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 또는 Student t-검정을 시행하였다. 일원변량 분석시 사후 검정은 Scheffe법을 이용하여 그룹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문항의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는 Cronbach의 α 계수를 구하여 알아보았다.

결 과

총 문항에 대한 문항의 내적 일치도인 Cronbach의 α 계수는 0.80의 값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Number of Subjects (%)
Sex	
Male	28(45.9)
Female	33(54.1)
Age	
20s	29(47.5)
30s	16(26.3)
40s	12(19.7)
50s	4(6.5)
Years of education	
Under 12	11(18.1)
12-14	35(57.4)
Over 14	15(24.5)
Marital status	
Single	29(47.5)
Married	32(52.5)
Religion	
Buddhism	15(24.5)
Christianity	12(19.8)
Catholicism	5(8.2)
None	29(47.5)
Residential area	
Rural	32(52.5)
Urban	29(47.5)
Type of contact	
Direct	35(57.4)
Indirect	26(42.6)
Total	61(100.0)

1. 인구학적 자료

본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사항은 Table 1과 같다. 남성이 45.9%였으며, 20대와 30대가 각각 47.5%, 26.3%였다.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가 각각 24.5%, 19.8%였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도 47.5%였다. 교육수준은 57.4%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었으며,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도 응답자의 24.5%였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도 47.5%였다. 거주 지역은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가 52.5%,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47.5%였으며, 직접 접촉군이 57.4%였고, 간접접촉군이 42.6%였다.

2. 각 요인별 분석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5개 요인에 따른 분석은 Table 2와 같다.

1) 정신과 영역의 장점

성별에서 t-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성이 더 긍정적이었다. 결혼 상태에서는 t-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기혼자 집단이 더 긍정적이었다. 연령, 학력, 거주지역, 접촉형태에서 t-검정 혹은 일원변량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효 용

성별에서 t-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성이 더 긍정적이었다. 연령, 학력, 결혼상태, 거주지역, 접촉형태에서 t-검정 혹은 일원변량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정신과 의사의 기능과 역할 정의

접촉형태에서는 t-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직접 접촉군이 더 긍정적이었다.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거주지역에서 t-검정 혹은 일원변량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일어날 수 있는 남용과 사회적 비난

접촉형태에서는 t-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직접 접촉군이 더 긍정적이었다.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거주지역에서 t-검정 혹은 일원변량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5) 경력과 개인적 보상

접촉형태에서는 t-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Table 2. Results of staffs' attitudes and opinions toward psychiatry

Variables	Factor		Overall merits of the field of psychiatry		Efficacy		Role definition and functioning of psychiatrists		Possible abuses and social criticisms		Career and personal rewards	
	Mean±S.D.	F value	Mean±S.D.	F value	Mean±S.D.	F value	Mean±S.D.	F value	Mean±S.D.	F value	Mean±S.D.	F value
Sex ^a	Male	17.90±3.38	-2.43*	7.40±1.75	-2.09*	24.20±3.73	-0.29	33.55±6.95	-1.35	6.60±1.63	-0.95	
	Female	20.03±2.62		8.29±1.17		24.51±3.60		35.78±4.33		7.03±1.51		
Age ^b	20s	18.43±1.45		7.68±1.45		24.06±2.69		34.68±4.57		7.31±0.70		
	30s	19.00±3.81	0.63	7.80±1.97	0.45	24.27±4.45	0.43	34.13±7.87	0.19	6.47±2.03	2.06	
	40s	19.83±2.91		8.33±0.88		25.33±3.98		35.41±4.83		6.33±1.30		
Years of education ^b	Under 12	18.67±4.50		7.78±2.43		22.45±2.00		31.67±6.76		6.56±2.51		
	12-14	19.07±2.63	0.23	7.81±1.29	0.39	24.30±3.02	2.66	35.15±5.07	2.07	7.23±1.14	1.89	
	Over 14	19.58±3.15		8.25±1.05		26.00±4.08		36.50±5.47		6.25±1.35		
Marital status ^a	Single	18.14±3.51	-2.00*	7.47±1.77	-1.84	23.76±3.89	-1.05	34.23±6.61	-0.64	6.95±1.39	0.39	
	Married	19.92±2.57		8.27±1.15		24.88±3.38		35.30±4.80		6.77±1.70		
Residential area ^a	Rural	18.81±3.25	-0.77	7.73±1.61	-0.93	23.92±3.93	-0.96	34.53±6.37	-0.39	6.53±1.70	-1.55	
	Urban	19.52±2.99		8.14±1.35		24.95±3.20		35.19±4.71		7.23±1.30		
Type of contacts ^a	Direct	19.52±2.52	0.99	8.22±1.28	1.66	25.56±3.59	2.75**	36.70±5.05	2.84**	7.22±1.28	1.97*	
	Indirect	18.60±3.80		7.50±1.70		22.80±3.08		32.30±5.52		6.35±1.78		

a : t-test was used for analyzing data statistically, b : ANOVA was used for analyzing data statistically, * : p<0.05, ** : p<0.01

며, 직접 접촉군이 더 긍정적이었다.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거주지역에서 t-검정 혹은 일원변량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고 찰

정신과 질환을 경험한 환자나 정신과 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 지역사회 일원으로 그 지역사회 주민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 뿐만 아니라, 정신과 병원에 근무중인 직원의 인식과 태도 또한 정신과 질환과 환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직접 접촉군이 간접 접촉군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각 요인에 대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정신과 영역의 장점 요인에서는 여성이 유의하게 긍정적이었다. 이 결과는 기존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8,13,14)}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사공정규와 채정옥의 연구⁹⁾에서 정신과 환자의 가족 및 본인의 정신과 치료 경험군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병원에 근무하는 여성의 상당수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호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직원에 비하여 많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기혼자 집단에서 유의하게 긍정적이었다. '정신과는 비과학적이고 정확하지 않다'는 문항은 응답자의 60% 이상에서 동의하지 않았으며, '정신과는 최근 수년간 정신분열병과 우울증의 생물학적 치료에 있어 상당히 발전하였다'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65% 이상이 동의하였다. 이는 최근에 정신과의 생물학적 치료와 뇌영상학의 발전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음으로 정신과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신과 질환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직접 접촉 유무, 연령,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효용 요인에서는 여성에서 긍정적이었다. 이는 정신과 진료의 효용성에 대하여 여성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울장애¹⁵⁾이나 불안장애¹⁶⁾와

같이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더 흔하면서 치료 효과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질환에 대한 치료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남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알콜 의존¹⁷⁾ 환자에서 내·외과 질환을 동반한 경우에 내과 혹은 외과 치료는 받으나,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통계적으로 직접 접촉군과 간접 접촉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0$). '내과 및 외과 환자에게 정신과 자문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항은 직접 접촉군은 70% 이상에서, 간접 접촉군은 35%정도가 각각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당뇨병 환자나 암 환자 등이 흔하게 경험하는 적응장애나 우울장애의 치료를 간과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이 흔하게 경험하는 내과 혹은 외과 질환과 공존하는 정신과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과 의사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거주지역, 가족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정신과 의사의 기능과 역할 정의 요인에서는 직접 접촉군이 더 긍정적이었다. '정신과는 정신증(psychotic disorder)을 치료하고, 신경과는 신경증(neurotic disorder)을 치료한다'는 문항에서 직접 접촉군은 1/3 정도가 동의하였으나, 간접 접촉군은 2/3 정도에서 동의하는 등의 상당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는 아직 정신과와 신경과라는 과 명칭으로 인한 '진료영역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병원에서 정신과로 자문 의뢰된 환자중 정신과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30~50%였다는 점^{18,19)}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정신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정신과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정신과와 정신과 질환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포함한 정신과 의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거주지역, 가족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일어날 수 있는 남용과 사회적 비난 요인에서는 직접 접촉군이 더 긍정적이었다. '입원한 정신과 환자는 많은 양의 약물을 복용한다'는 문항에서 직접 접촉군은 10%가 동의를 하였으나, 간접 접촉군에서는 50%가 동의를 하였다. 이는 정신과 질환과 정신과 약물에

대한 이해부족을 보여주는 것으로 직접 접촉의 경험이 없는 직원이 정신과 약물 복용 순응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편견에 대하여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과 질환은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는 문항에서 직접 접촉군과 간접 접촉군이 각각 50%와 70%가 동의하였다. 정신분열병은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경과를 지니며, 약 20~30%의 환자는 어느 정도의 증상을 가지고 살아가며, 40~60%의 환자는 증상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²⁰⁾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향후 정신과 환자의 좋은 치료 결과를 통한 정신과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이해의 증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근무 경력에 따른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가족이 치료를 받는 경우 주위에 이야기 할 수 있다'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27%는 동의하지 않았고, 30%는 보통이다, 나머지는 동의하였다. 이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¹²⁾에서도 30%는 부정적, 30%는 중립적, 30%는 긍정적으로 응답을 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며,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도 정신과 질환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이 주변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정신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거주 지역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경력과 개인적 보상 요인에서는 직접 접촉군이 더 긍정적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 대하여 응답자가 신중을 기하여 곤란한 문항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을 한 결과일 수도 있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거주 지역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적인 정신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긍정적이었으며, 직접 접촉군, 여성, 기혼집단일수록 긍정적이었다. 김종석 등의 연구¹⁰⁾에서 정신과 질환에 대한 지식과 치료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았던 군이 정신과 질환을 더 싫어하고 더욱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신과 환자와의 접촉이 정신과와 정신과 질환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결과^{21,22)}는 본 연구에서 정신과 환자를 직접 접촉한 군에서 더 긍정적이라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런던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²³⁾에서 비기능적 태도(dysfunctional attitude)가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발생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신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태도가 환자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직원에 대한 정신과와 정신과 질환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정신과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영국에서 시행한 다른 연구²⁴⁾에서 정신과 질환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정신의학에 관한 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점과 정신과 환자 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²⁵⁾에서 보호자가 경험하는 부담과 정신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정신과 병원의 직원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 지역의 한 병원에서만 시행되었으므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 대상자의 수가 부족하였다. 향후 다른 지역의 다른 병원, 종합병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둘째, 기존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ommunity Attitude to Mentally Ill Inventory (CAMI)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연구와 직접적인 비교 연구가 어려웠다. 향후 같은 도구를 이용한 연구를 실시한 직접 비교 연구도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정신과 환자와 접촉전과 접촉시간의 경과에 따른 태도의 차이에 관한 전향적 연구를 통하여 차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향후 새로 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추진중이다.

정신과 환자는 '무서운 사람', '함께 일을 하기 두려운 사람'이라는 생각^{5,6)}보다는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환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환자를 인간적으로 보고, 인도주의적인 치료를 하며,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²⁶⁾고 한다. 주관적인 증상이나 삶의 만족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환자 치료의 효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²⁷⁾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정신과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정신과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감사의 글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신 안강중앙병원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REFERENCES

- (1) 류석환, 이양현. 대학병원에서 자문의뢰 의사의 정신과 자문의뢰 만족도와 정신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 *신경정신의학* 2002;41:1209-1222.
- (2) 민성길. 정신의학의 개념과 그 역사. 민성길 편저. *최신정신의학*, 4판. 서울: 중앙문화사;1999. p.1-14.
- (3) Kirmayer LJ. Culture, affect, and stigmatization. *Trans-cultural Psychiatry Res Rev* 1984;21:159-88. Cited from Hutchinson G, Neehall JE, Gimeon DT, Littlewood R. Perceptions about mental illness among pre-clinical medical students in Trinidad & Tobago. *West Indian Med J* 1999;48:81-84.
- (4) Ilana. On stigma in our society. *The Isr J Psychiatry and Related Sci* 2002;39:174-180.
- (5) Byrne P. Stigma of mental illness: Changing minds, changing behaviors. *Br J Psychiatry* 1999;174:1-2.
- (6) Wise TN, Mann LS, Dove HW, Pluchik E, Kiernan KW. Patients' perceptions of psychiatric consultations. *Compr Psychiatry* 1985;26:554-557.
- (7) 이홍식. 정신분열병, 민성길 편저. *최신정신의학*, 4판. 서울: 중앙문화사;1999. p.226-256.
- (8) 이정은, 이영문, 임기영, 이호영. 안산시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신경정신의학* 1999; 38:530-538.
- (9) 사공정규, 채정옥. 포항시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2001;40:50-62.
- (10) 김종석, 김용식, 하규설, 양익홍, 이부영. 정신장애자 가족의 정신장애에 대한 태도조사. *서울의대 정신의학* 1989;14:45-57.
- (11) 류석환, 서승우, 정수기. 일 병원 직원의 삶의 질에 관한 예비적 연구. *정신신체의학* 2004;12:38-46.
- (12) 류석환, 이양현. 비정신과 의사의 정신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 *생물치료정신의학* 2001;7:120-129.
- (13) 이명수, 황태연, 이주훈, 유명이. 수서-일원 지역 주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용인정신의학보* 2002;9:71-80.
- (14) 장홍석, 김선욱, 장성만, 성영훈, 서동우, 조맹제.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연구: 일 도시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정신의학* 2002;7: 103-115.
- (15) Kaplan HI, Sadock BJ. Kaplan and Sadock's Synopsis of Psychiatry. 8th ed. Maryland: Williams & Wilkins;1997. p.524-580.
- (16) Kaplan HI, Sadock BJ. Kaplan and Sadock's Synopsis of Psychiatry. 8th ed. Maryland: Williams & Wilkins;

1997. p.581-628.
- (17) Kaplan HI, Sadock BJ. Kaplan and Sadock's Synopsis of Psychiatry. 8th ed. Maryland: Williams & Wilkins; 1997. p.375-455.
- (18) 민성길, 조강주. 정신과 의뢰에 대한 임상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1977;27:23-30.
- (19) 김현우. 일반 종합병원에서의 정신과 자문. 정신의학보 1980;4:82-85.
- (20) Kaplan HI, Sadock BJ. Kaplan and Sadock's Synopsis of Psychiatry. 8th ed. Maryland: Williams & Wilkins; 1997. p.456-491.
- (21) Desfoes DM, Lord CG, Ramsey SL, Mason JA, Van Leeuwen MD, West SC, Lepper MR. Effects of structured cooperative contact on changing negative attitudes toward stigmatized social groups. J Pers Soc Psychol 1991;60:531-544. Cited from Eker D, Arkar H. Influence of a 3-week psychiatric training programme on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in medical students. Soc Psychiatry Psychiatr Epidemiol 1997;32:171-176.
- (22) Dewan MJ, Levy BF, Donnelly MP. A Positive view of psychiatrists and psychiatry. Compr Psychiatry 1988; 29:523-531.
- (23) Scott W, Rachel C, Glyn L. Dysfunctional Attitudes and the common mental health disorders in primary care. J Affect dis 2003;75:269-278.
- (24) Wolff G, Pathare S, Craig T, Leff J. Community Knowledge of Mental Illness and Reaction to Mentally Ill People. Br J Psychiatry 1996;168:191-198.
- (25) 류석환. 정신과 환자 주 보호자의 삶의 질과 부담 영향요인. 정신신체의학 2004;12:56-65.
- (26) 최영희. 정신과 영역에서 삶의 질에 대한 고찰. 신경정신의학 1997;36:19-31.
- (27) 유희정, 윤도준, 신영우, 반건호, 김종우. 정신분열병 환자의 삶의 질과 병식. 신경정신의학 1999;38: 340-348.

— ABSTRACT ————— *Korean J Psychosomatic Medicine 13(1) : 60-66, 2005* —

Staffs' Attitudes and Opinions toward Psychiatry in a Psychiatric Hospital

Seuk Hwan Ryu, M.D.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Ankang Chungang Hospital, Gyeongju, Korea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ffs' attitudes and opinions toward psychiatry in a hospital.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were taken as a basic data of the education programs of persons who worked in a hospital and community residents.

Methods :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persons who worked in a hospital. The tool used in this study was Attitudes and Opinions toward Psychiatry. Sixty-one persons were studied. Statistically one-way ANOVA or t-test were used.

Results : Internal consistency was high, measuring 0.80 for the 26 items. Generally, hospital staffs have positive attitude toward psychiatry. Direct patient contact group scored more higher than indirect contact group, except 'overall merits of the field of psychiatry' and 'efficacy' factor. In factor 'overall merits of the field of psychiatry', and factor 'efficacy' female scored more higher than male averagely. In factor 'role definition and functioning of psychiatrists', 'possible abuses and social criticisms', and 'career and personal reward', direct patient contact group scored more higher than indirect contact group averagely.

Conclusion : This study result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the direct patient contact group have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psychiatry than the other group. It will be necessary to educate for a psychiatric hospital staffs and community residents on psychiatry.

KEY WORDS : Attitude · Psychiatry · Contact.